

### 김옥수 간협 회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만나

## 간호사 지속근무 지원사업 등 위해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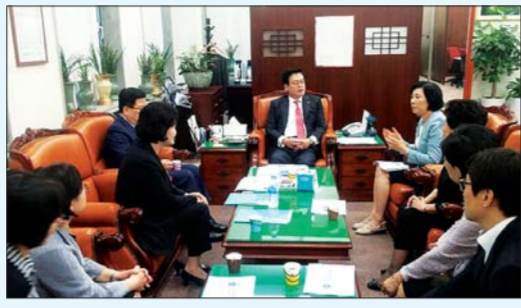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9월 13일 방문에 간호사 부족문제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광립 정책위의장, 윤종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김옥수 회장과 김남조 제2부회장, 김봉숙 전 총북간호사회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병원현장의 간호사 부족문제는 숙련된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이직·사직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종별 및 지역별 쏠림 현상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풀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 정책을 펼쳐왔지만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신규 불균형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는 유휴간호사 재취업은 물론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직 방지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센터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간호사 부족문제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 가운데)를 만나 간호사 부족문제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2015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중앙센터를 비롯해 전국 7개 권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는 개정된 의료법 제60조의3에 명시돼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에 목표를 두고 있다.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졸업예정자와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 유휴 및 이직 간호인력의 취업 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닥터헬기, 6년 만에 5천명 이송 돌파

## 전국 6개 지역에 배치 ... 의료기관에서 운영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운항을 시작한지 6년 만에 이송한 환자 수가 5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닥터헬기는 9월 6일 5000번째 임무를 완료했다.

닥터헬기는 지역 거점응급의료센터에 배치돼 요청을 받은 즉시 전문의료진이 탑승·출동하며,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해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 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이다.

복지부는 도서 및 산간지역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제공을 위해 2011년 이후 6개 지역을 닥터헬기 운영지역으로 선정하고 닥터헬기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닥터헬기 배치지역(운영기관)은 인천(가천대 길병원), 전남(목포한국병원), 강원(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경북(안동병원), 충남(단국대병원), 전북(원광대병원) 등이다.

2011년 9월 국내 최초로 운항을 개시한 닥터헬기는 그 해 76명의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했다. 이후 2012년 320명, 2013년 485명, 2014년 950명, 2015년 941명, 2016년 1196명으로 점차 이송횟수가 증가했다.

전체 이송 환자 수가 올해 1월 4000명을 넘은 데 이어 이번에 5000명을 돌파했다.

닥터헬기를 통해 이송된 환자 현황을 보면 중증외상,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 3대 중증응급환자가 56.1%를 차지한다. 호흡기관, 화상, 의식저하, 쇼크 등의 기타 응급질환환자가 43.9%이다.

복지부는 "닥터헬기 운영지역을 현재 6개에서 11개로 점차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배치병원뿐 아니라 소방, 해경 등 구급헬기 운영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 군산간호대 청소년 노인체험 프로그램 실시

군산간호대(총장 김순자)는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이 주관하는 청소년 문화축제 '2017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참여해 '지역사회 청소년 노인체험 프로그램' 부스를 9월 9일 운영했다. 노인 이해도를 높이고, 노인 공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청소년들이 참여해 노인체험을 했다. 80세 노인의 평균체력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된 체험기구를 착용하고 글자 읽기, 문 열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을 직접 경험했다.

김순자 총장은 "청소년들이 노인 체험을 통해 어르신들을 이해하고, 세대 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 국군간호사관학교, 학부모 초청 부대개방 행사

국군간호사관학교(학교장 윤원숙 장군)는 제39회 백합제를 맞아 부모 초청 부대개방 행사를 9월 15일 개최했다. 백합제는 매년 열리는 축제로 학생들이 주체가 돼 준비한다.



1학년 김정하 생도는 "축제 기간 중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학교 숙소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백합제 기간 중 부대개방 행사 등을 통해 학교에 대한 이해와 금급증을 해소하고, 학교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유익하고 발전적인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편 축제기간 중 운영된 백합존 및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 일부를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주혜진 기자 hjoo@

### 여러분의 홍보물은 성평등합니까?

## 공공기관 홍보물의 성차별 개선 권고

공공기관의 성차별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물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여성가족부는 20개 공공기관 페이스북에 게시된 1261건의 홍보동영상 및 이미지에 대해 특성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12개 기관의 17개 홍보물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해당 기관에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남녀가 다양한 활동에 균형 있게 참여하는 모습을 그리거나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한 우수사례도 9건 발굴됐다.

△개선해야 할 성차별 사례=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근로현장에서 사장은 남성, 주방담당은 여성, 배달원은 남성으로 표현한 경우이다.

△성평등한 홍보물 우수사례= 직원채용 공고 포스터에 성별 구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한 경우가 우수사례로 꼽혔다.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자녀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모습, 온 가족이 함께 대청소를 하는 모습, 김치 담그기에 남성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정비 분야에서 당당하게 일하는 여성의 모습 등을 표현한 홍보물이 성평등적인 우수사례로 나타났다.

물 부족 문제해결 홍보 포스터에서 여성은 어쩔 줄 몰라하는 소극적인 인물로, 남성은 컴퓨터 앞에 앉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인물로 묘사한 것은 여성이 남성 의존적이라는 편견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드러났다.

다이어트 상식 홍보물에서 날씬하지 않은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운동하고, 날씬한 여성은 흐뭇하게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제기됐다.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자녀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모습, 온 가족이 함께 대청소를 하는 모습, 김치 담그기에 남성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정비 분야에서 당당하게 일하는 여성의 모습 등을 표현한 홍보물이 성평등적인 우수사례로 나타났다.

최수정 기자 sjchoi@

### 대한소화기내시경간호학회, 군병원 내시경 세척소독 워크숍

대한소화기내시경간호학회 경인지회(회장 조옥연)는 국군의무사령부 의료관리과(과장 양지인 중령)와 공동으로 '군병원 중심 내시경 세척소독 워크숍'을 9월 2일 가천대 길병원에서 개최했다.



군병원의 내시경 질 관리 향상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전국 20여곳의 육군, 공군, 해군 군병원에서 내시경 소독실무를 담당하는 간호장교 및 간호사 30여명이 참여했다.

소화기계 해부, 내시경실에서의 안전한 진정관리, 내시경실 감염

관리, 내시경의 구조와 원리, 내시경 세척과 소독과정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세척소독 핸드슨(Hands-on) 세션을 열어 내시경 세척소독 실습을 실시하고,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개인맞춤의료 실현 '정밀의료 사업단' 출범

난치암 환자 2000명에게 개인맞춤치료 기회가 열리고, 안전하게 보관된 개인 건강정보를 실시간 진료에 활용하는 병원정보시스템이 개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맞춤의료 실현과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밀의료 사업단'을 구성하고, 고대 의학연구원(KU-MAGIC) 4층에 사무국을 9월 5일 개소했다.

정밀의료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향후 5년간(2017~2021년) 국비 6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단 공모 및 평가를 거쳐 '암 정밀 진단·치료법 개발 사업단'은 고대 안암병원(단장 김열홍 교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사업단'은 고대의료원(단장 이상현 교수)이 선정됐다.

암 정밀 진단·치료법 개발 사업단은 난치암 환자 1만명의 유전정보를 분석해 표적치료제 적용이 가능한 약 2000명에게 개인맞춤치료를

를 적용하고, 3건의 표적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

암종별 표적치료제 개발이 성공할 경우 최소 15%, 최대 40%의 환자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폐암, 위암, 대장암의 경우 연간 5000명~1만 3000명이 유전변이를 표적으로 한 치료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사업단은 의료기관의 진료, 진료 지원, 원무 등 주요 기능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로 개발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환자는 개인 진료정보를 공간적 제한 없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의사는 진료 시 환자의 건강정보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개인맞춤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주혜진 기자 hjoo@

### 건강정보 모바일 '건강iN 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iN 앱' 서비스를 출시했다.

건강iN(hi.nhis.or.kr)은 무분별하게 서비스되고 있는 건강정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가 검증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정보전문사이트이다.

건강iN 앱의 주요 기능은 위치 정보를 활용해 주변의 검진기관이나 병·의원을 찾고, 편의정보(접수시간, 길찾기, 주차 등)를 상세하게 제공한다.

매일 측정할 혈압·혈당 정보를 자동 전송해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손쉽게 도와준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수집한 건강상태 측정정보뿐 아니라 본인의 건강검진결과, 거주지·성·연령별 동일집단과의 비교 정보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검진결과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질환예측 결과와 개선해야 할 생활습관도 함께 제공한다.

주혜진 기자 hjoo@

보수교육 프로그램 정보안내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edu.kna.or.kr

Table with nursing new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regions and departments.

Large advertisement for RNjob.or.kr featuring a nurse and text about recruitment and education services.